

의 원

건의서

(건명 : 대로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추가고시에 관한 사항)

국토의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헌신 노력하시는 건설부장관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서산군의회 의원일동은 9만여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오니 바쁘신 국정 수행중에도 저희 서산군민의 바램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저희 서산군은 충남의 서북단에 위치한 오지 지역으로 불과 몇년전만해도 전국 제일의 용군이었으나, 1989년 1월 1일자로 법률 제 4050호에 의거 3개 시·군으로 분시·분군후후 군세가 일시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본군 관내 대산읍 지역의 임해공단 조성으로 극동정유(주), 삼성종합화학(주), 현대석유화학(주) 등 3사가 이미 준공되어 가동중에 있어 이를 소재로한 관련 중소기업 200여 업체가 유치될 전망으로 있고 대산배후도시 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1996년도에는 인구 8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배후공업 도시로 개발될 전망으로 전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 지방화 시대의 봄을 타고 본군에서는 대산

신도시 계획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대산 도시계획 중심지인 대산리 앞바다 공유수면 (371ha)을 공영개발 사업으로 매립하여 극동정유등 3사의 공장 인접지역 이주민 정착지 및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지 조성과 이에 발생하는 쓰레기 매립장(군관내 통합 쓰레기장), 그리고 대기업에 부수되는 계열 기업의 공장부지 및 기타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또한 본 사업예정지구는 위와 같은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천혜적인 최적지로서,

3. 본군에서는 가로림만내 대로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위하여 1989년 6월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여년전부터 관계부처인 충남도, 동자부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매립고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온 결과,

4.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동자부에서는 본 사업의 타당성을 정밀히 연구검토하여 공문 화신(입지 29134-147 '92. 6. 8)을 통해 가로림만내 대산대로지구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있어서는 약 290ha 면적의 매립은 가능하다고 동의해온바 귀부의 추가매립고시 단계만 남겨둔 상태에서 9월에 되느냐, 10월에 되느냐하고 부푼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던차에 9월 2일 귀부에서 매립 기본계획 반영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니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해가 않습니다. 모쪼록 장관님께서 대산 신도시개발에 따른 공공용지 확보는 물론, 주거용지 공급 등 신도시 개발에 일익이 되도록 해주심으로써 군민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의 건승을 빕니다.

1992. 10. 9.

건의자

서산군의회

의장
부의장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건의서

(건명 : 개발이익 환수금 환원과 관련한 사항)

200만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오심으로써, 도정 발전은 물론,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사님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산군의회 10명의 의원일동은 9만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다음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다 음

1. 본군은 89. 1. 1자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산시와 태안군이 분리됨으로써, 군세가 약화

되어 민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오고 있으며 이와때를 같이하여 본군관내 대산지역에 극동정유(주), 삼성종합화학(주), 현대석유화학(주) 등의 3사를 중심으로 임해공단이 조성가동중에 있어 역사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2,000년대를 향한 서해안시대의 봄을 타고 날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군민이 거는 기대는 자못 크며 부푼 꿈을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2. 분시, 분군으로 인한 약화된 저희군의 군세 도약을 위하여 활력적인 지원을 해주셨어야 함에도 개발이익환수 대상업체인 삼성종합화학(주)과 현대석유화학(주)이 본군 대산지역에 공장을 설립코자 공유수면을 매립 공장부지 조성사업이 한창인 1989년도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충남도와 위2개 대상업체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3. 도에서는 1990. 7. 11 삼성종합화학(주)으로부터 239,037만원을, 동년 12월 27일 현대석유화학(주)로부터는 228,266만원등 도합 467,303만원을 개발이익금으로 환수해간후 이지역 주민의 빗발치는 항의에 못이겨 도에서는 1992. 7. 2. 지역 개발 협력기금 운영개선 방향의 차원으로 기금액중 50%를 해당 시·군에 환원한다는 방침(개발 01003-45)을 세워놓고 본군 92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로 10억원을 보조한후 나머지 금액은 합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허리띠를 졸라매고 약화된 군세를 회복하느라 민과관이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사실을 깊이 헤량하시어 도에서 환수해간 4,673,030천원의 50%에 해당하는 2,336,515천원중에서 기히 교부 결정통지